

성령님을 기다리며 해야 할 일 - 기도

성경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 ~ 26절>

[12]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밋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에 힘쓰더라 [15]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백이십 명이나 되더라 그 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6]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17]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8] (이 사람이 불의의 삯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19]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20]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렸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21]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3]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맛디아라 [24]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 제비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고, 천사들(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제자들에게 보았던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드러내 주는 증표라고 생각됩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도행전의 순서를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부터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했던 일을 보여 줍니다.

1. 한마음으로(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습니다.

[14]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했던 일은 기도였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약속이 주어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였다고 하였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의미로 깨달아졌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더욱 더 한 마음이 되었다고 깨달아졌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 한 사람이 아니었고, 약속에 순종하였던 사람들이라는 점이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하셨지만, 그렇게 기도했던 공동체에도 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생각이 모아졌고 기도하면서 하나 됨을 경험하였습니다.

2.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믿었습니다.

[16] 형제들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 [20]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 [24]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 제비 뽑아 맞디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12명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명,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사람을 세우겠다고 결정하게 된 동기가,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다른 사람을 뽑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말씀대로 순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제비 뽑힌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던 자신들과 똑같은 의미로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눈 앞에 보인 일들에 대해서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일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결론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제목>

1. 기도를 통해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소서.
2.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